

터키인의 독일 이주와 정체성 문제*

-<나의 가족, 나의 도시(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 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

신 종 략**

- I. 들어가는 말
- II.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터키인의 독일 이주
- III. 정체성과 인습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은 갑작스런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터키 노동자들이 독일에 초청되어 오게 되었다. 이들의 삶을 다룬 영화가 터키 이주민 2세대가 만든 <나의 가족, 나의 도시> 영화다. 이 영화에 나오는 가족은 나름대로 독일에 잘 적응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터키 이주민 가족이다. 터키 이주민 가족은 시대에 따라서 정체성도 다양해지고 그들이 터키인이라는 의식도 희박해진다. 서류상으로 그들은 독일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실제로 독일인들이 그들을 독일인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다루어

* 본 논문은 정부(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지지 않고 있다. 터키인 가족 구성원의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체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1세대 후세인은 여전히 자신을 터키인이라고 생각하지만 2세대 자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3세대 첸크는 자신을 독일인으로 알고 있다가 간간히 정체성 문제에 부딪힌다. 이 가족들이 독일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것은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다. 여전히 사회문화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는 세대를 거치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 영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또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이주, 정체성, 이슬람, 터키 노동자, 명예살인, 히잡, 다문화, 통합

I. 들어가는 말

최근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이주함으로써 유럽은 전쟁 이주민에 의하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유럽연합에 가입했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 수 급증 문제 때문이었다.¹⁾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이민자 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가 유럽연합의 탈퇴를 부추겼다. 유럽연합은 시리아에서 이주민이 증가하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유럽 선진국이 이들을 수용하도록 이주민의 수를 임의로 할당했다. 이에 영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보면 더 이상의 이주민 유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주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났고 국가 간의 민감한 문제로 등장했다.

1960~70년대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나라를 중심으로 손님 노동자들이 이주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님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때 독일에 이슬람을 믿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터키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독일의 터키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몇 가지 중요한 연구 성과를 보면 정용숙은 「1970~90년대 독일의 터키 이주민 가족 : 초국적 이주는 가족적 삶과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라는 논문에서 이주한 터키인들의 독특한 전통적 공동체와 그들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²⁾ 박재영은 「독일 다문화사회의 터키인 공동체」에서 터키인의 독일이주와 터키인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과정, 제도 및 법적 진행과정에 관해서 서술했다.³⁾ 나혜심은 「터키인의

1) 박영하 외, 『유럽의 경제와 문화』, 산과글, 2016, 14~15쪽.

2) 정용숙, 「1970~90년대 독일의 터키 이주민 가족 : 초국적 이주는 가족적 삶과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인문과학』 58, 2015.

독일 이주를 통해 본 이주자의 문화적응방식, 그리고 이주의 의미」이란 논문에서 어떻게 터키 노동자들이 독일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독일 문화에 적응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 연구했다.⁴⁾ 안나 다츠키비츠는 「저편에 있는 아버지: <나의 가족, 나의 도시> 영화에 나타난 손님 노동자의 운명(Jenseits von Atatürk: Das Gastarbeiterschicksal im Film 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에서 영화를 분석하면서 터키 외국인 노동자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정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노동 계약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하리라고 믿었던 노동자들이 독일에 정착해 살면서 독일 내 외국인 인구는 약 8백만을 넘었고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독일정부는 기존의 이주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의 정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독일의 국적법(2000)과 이민법(2005)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울리히 프로이스(Ulrich K. Preuss)는 독일의 국적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전통적으로 속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법이 이주와 관련하여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⁵⁾

세계 경제가 양극화되고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인류의 이동이 빈번해졌다.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 이주하는 적극적인 이주도 빈번한 편이다. 과거에는 기아, 전쟁, 핍박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하는 이주였으나 현대에는 더 향상된 삶의 조건을 찾아 이주하는 적극적인 이주도 늘고 있다. 반드시 이주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을 극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하는 삶은 비자발적인 이주와 자발적인 이주의 중간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박재영, 「독일 다문화사회의 터키인 공동체」, 『다문화콘텐츠연구』 12, 2012.

4) 나혜심, 「터키인의 독일 이주를 통해 본 이주자의 문화적응방식, 그리고 이주의 의미」, 『독일연구』 33, 2016.

5) Ulrich K. Preuss, "Citizenship and the German Nation", *Citizenship Studies* 7/1, 2003.

그렇다면 독일로 가장 많이 이주한 터키인의 이주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터키 이주민 2세대 야스민 삼데렐리(Yasemin Samdereli) 감독이 제작한 <나의 가족, 나의 도시(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⁶⁾라는 영화를 통해 터키 이주민들이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세대를 통해서 전통과 인습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자 한다.

II.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터키인의 독일 이주

유럽 내 이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독일의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53%이고 프랑스는 6.6% 그리고 영국은 8.63%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⁷⁾ 독일은 부유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착된 나라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국으로 선호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마다 수많은 이주민이 유입된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0년 동안 높은 실업률 때문에 자국민 노동자를 고용했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195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고용했고 1960년부터 대규모로 수용했다.⁸⁾

처음에는 이탈리아(1955), 그리스와 스페인(1960)과 노동자 파견계약을

6) 영화의 원 제목은 ‘독일-독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한국에 소개된 영화의 제목에 따라 <나의 가족, 나의 도시>로 표현하고자 한다.

7) Ausländeranteil in den EU-Ländern 2016(Statista 2017)

8) Stephen Castles, Hein de Haas,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5th ed.), New York and London: Guilford Press, 2014, p. 107. 1956년 약 95,000명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10년 후인 1966년에 130만, 그리고 외국인 초청노동자 정책이 중단되는 1973년에는 260만까지 증가했다.

체결했고 그 후 1961년에 터키와 계약을 체결해서 많은 터키 노동자들이 독일에 들어왔다.⁹⁾ 나중에는 홍콩, 한국, 필리핀에서도 손님 노동자들이 간호사나 광부로 입국했다. 독일은 서유럽의 노동자와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와는 다른 법적 자격을 적용했다. 이들은 2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조건으로 입국했다. 독일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후 자국민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침체하자 더 이상의 노동자들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했다.¹⁰⁾ 독일정부는 손님 노동자들을 데려온 후에 이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은 별도의 이주민 정책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 노동자들이 장기체류를 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들 자녀들이 태어나자 주거문제, 건강, 교육 그리고 독일인과의 관계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78년에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초대 정부 외국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지사 하인츠 쿨(Heinz Kühn)이 임명되었다.

그는 1979년 독일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통합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거기서 초청된 외국 노동자가 돌아가기 곤란한 상태이고 이주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에 하인츠 쿨은 외국인 장기 체류자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서 이들을 독일 사회로 포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과 정치 협력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켰고 그리고 통합의 조처로 외국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그의 제안 대부분은 유치원, 학교 그리고 직업교육 기관 등 공적기관에서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9) Inken Keim, *Mehrsprachige Lebenswelten. Sprechen und Schreiben der türkischstämmigen Kinder und Jugendlichen*. Tübingen: Narr Verlag, 2012, p. 30.

10) 안종철, 「탈냉전 전후 독일의 시민권제도와 이주민 정책의 변화 -국적법과 이민법을 중심으로-」, 『사총』 90, 2017, 227쪽.

자는 것이었다.¹¹⁾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독일사회민주당(SPD)과 자유민주당(FDP)은 이 안을 수용을 하지 않았고 이민자 2세들의 귀화를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방상원(Bundesrat)의 다수당인 독일기독교민주연합(CDU)이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1982년에는 독일기독교민주연합이 여당이 되면서 이민을 제한하고 독일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따라서 ‘외국인 본국 귀환 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Rückkehrbereitschaft von Ausländer)¹²⁾은 1983년 11월에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1년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귀국 시 연금을 즉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독일 시민사회로부터 외국인의 이민상태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1983년 녹색당은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자격부여, 그들의 정치적 권리확대 그리고 이중국적의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 그러는 사이에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났고 난민 그리고 무국적 체류자도 늘었다. 성인들은 언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독일인과 의사소통도 불가능했다. 아예 독일인과는 담을 쌓고 외국인들끼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갔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외국인을 자기 나라로 귀환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성인들의 언어교육과 문화적응 교육에는 소홀했다.

1998년에 독일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하면서 독일 사회의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해서 새로운 국적법을 개정했다. 새로운 국적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국적법의 특징은 첫째, 독일 시민권을 포함한 체류자격의 획득에 필요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15년에서 8년으로 줄

11) Heinz Kuehn, Bundesregierung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IB/AmtUndPerson/heinz-kuehn.html>, 2017. 8.9.)

12) 이 법은 외국인들이 귀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간도 한정되어 있다. Der Gesetzentwurf will mit einem befristeten Angebot von finanziellen Anreizen die Rückkehrbereitschaft von Ausländern fördern.

었다. 둘째, 부모 중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8년간 거주했거나 3년 동안 무기한 체류자격(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2000년 1월 1일부터 그들의 자녀는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독일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18세가 될 때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독일어를 말할 수 있어야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장기체류와 가족 재결합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이민 2세대와 장기거주자의 귀환을 완화한 이 법은 외국인들에게 처음으로 일종의 이민을 인정한 법이다.

국적법¹³⁾을 개정된 독일은 이주 상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2000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독일에서 만 21세까지 최소한 8년을 살았거나 6년간 학교를 다녔다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이 법으로 독일 내 가장 많은 외국인 집단인 터키인들이 안정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¹⁴⁾

이들은 노동계약이 끝나면 터키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다수의 외국인 노동인력은 독일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이주민 1세대는 항상 고국에 대한 기억을 담고 살고 있다. 하지만 2세대는 의도적으로 터키에 대한 미련이나 생각을 지우려고 한다. 3세대에 오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해서 아예 터키에 대한 기억마저 갖고 있지 않게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갈등과 정체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터키 이주민 2세대인 야스민 삼데렐리 감독의 <나의 가족, 나의 도시>다. 이 영화를 통해 독일에 이주한 이주민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전통과 인습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국적법이 외국인과 관련해서 가지는 의미는 독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와 별도로 이민법은 해외에서 독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다. (안종철, 「탈냉전 전후 독일의 시민권제도와 이주민 정책의 변화 - 국적법과 이민법을 중심으로-」 234쪽.)

14) 이주민 중에서 터키인의 비율이 약 25%로 압도적으로 많다.

Ⅲ. 정체성과 인습

1. 정체성의 문제

영화에서 터키 손님노동자, 후세인이 독일에 입국하는 장면을 보면 무척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뚝뚝한 독일 경찰마저도 이 시기에는 웃는 얼굴로 터키 노동자들을 맞이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터키인들이 독일에 체류할 줄 몰랐고 또 귀국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독일인은 독일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갈 손님 노동자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는 자세로 친절을 베풀었다. 이 영화는 후세인의 손녀 카난이 나레이터가 돼서 1964년 9월 10일 백만 한 번째로 입국한 터키 노동자인 자신의 할아버지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는 할아버지 후세인이 독일로 입국할 때 45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은 터키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귀국할 사람이기 때문에 입국 초기에는 정부차원의 이주민 통합정책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소홀히 했고 문화 적응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터키 이주민 1세대들도 독일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05년 독일이 이주자법의 통과로 이주국가를 선언하기 전까지 이주자가 독일어나 법제도, 역사 등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나 강제조항이 없었다.¹⁵⁾

하지만 이들이 독일에 정착함으로써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서 독일 정부의 이주민 정책도 달라졌다. 2000년 이후부터 독일에 거주하려면 독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해야한다는 정책기조로 바뀌고 있다. 이주민 사회 적응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독일 정부가 일부 프랑스의 동화정책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고 이제까지와 달리 독일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15) Inken Keim, "Zum Zustandekommen der Studie und zur Anlage des Buches", *Studien zur Deutschen Sprache* 58, 2012, p. 11.

서 독일 언어, 문화, 역사, 법규를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로 독일 국민이 되려면 독일 국민으로서 독일 사회 적응 정책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주자 증가로 인해 서로 마주하게 된 두 개의 다른 문화에서 늘 이주자는 이주국의 문화에 맞추고 적응하도록 요구 받아왔다.¹⁶⁾

영화에서 비록 꿈이긴 하지만 관공서의 공무원이 후세인과 그의 부인에게 독일 국민이 되려면 돼지고기를 먹어야하고 격년마다 여름휴가를 마요카로 가야한다고 조언한다. 그의 부인은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했고 후세인은 갑작스런 제안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몹시 당황한다. 그리고 독일 여권을 받는다. 독일 시민권을 얻은 후세인은 독일 공무원이 제공한 돼지고기를 먹는 자신의 부인을 보고 놀란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었다. ‘꿈’이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긴 하지만 시민권을 얻는 것이 자신의 나라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후세인은 독일 시민권을 받고 마치 국가와 종교를 배신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낮이 나가 있다. 하지만 이주국가에서는 상대가 독일인으로 귀화했는지 아닌지가 그들이 획득한 시민권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를 얼마나 잘 수용했는가로 판단된다.¹⁷⁾

“당신은 이제부터 독일 사람입니다”라는 독일 공무원의 말에 부인은 몹시 감동한다. 독일 시민권을 받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더 이상 비자를 받으러 관청에 올 일도 없다.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혜택도 받고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후세인에게는 독일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이 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과는 달리 독일문화에 잘 적응하는 부인에 대해서도 약간의 배신감도 느낀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독일

16) 나혜심, 「터키인의 독일 이주를 통해 본 이주자의 문화적응방식, 그리고 이주의 의미」, 41쪽.

17) 앞의 논문, 61쪽.

시민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몹시 흡족해 하며 상황에 잘 적응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화에서 독일 사람들이 타문화에 대한 관용이 없는 것처럼 묘사된다. 냉정한 독일 공무원은 완전히 독일인이 되려면 무슬림으로서의 가치를 버려야만 독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것은 후세인만이 아니다.

그의 손자 첸크 역시 마찬가지이다. 후세인의 손자 첸크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터키 이야기가 나오면 주눅이 들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터키인 아버지와 독일인 엄마를 둔 첸크는 자신이 독일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냐고 하는 질문에 터키 아나톨리아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만 선생님이 지도를 보면서 유럽 지도에는 아버지의 고향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지도 밖에 표시해야 한다고 하자 첸크는 당황하고 침울해진다. 자신의 아버지가 유럽 태생이 아니라는 것에 몹시 부끄러워한다. 부모의 출신지와 자신들의 출신지가 다르므로서 야기되는 편견과 차별이 이주 2~3세대들의 고통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 이방인으로서 평생을 의기소침해서 살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생 외국인으로서 타인으로서 대접 받으며 살 수 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첸크가 학교에서는 느끼는 이질감은 거의 일상적인 것이다. 학급 아이들이 터키 대 독일로 편을 나누어 축구한다. 터키 아이들이 첸크를 독일 편에 서라고 어깨를 떠미는 것을 보면 첸크가 평소에 자신이 독일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모습들이 터키 아이들에게는 불만스럽게 보였을 것이고 독일 아이들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첸크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짝퉁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결국 첸크도 터키 학생과 독일 학생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첸크는 터키 아버지와 독일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로서 자신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 여

기서 터키인은 독일에도 속하지 못하고 터키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가 이주 2~3세대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어느 특정한 공통점을 갖고 무리 지어 살기 마련이다. 터키 사람들도 이슬람과 터키라는 종교와 국가의 공통적 특징을 갖고 무리를 지어살고 있다. 독일 어느 지역이나 터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다. 독일의 대도시는 물론 중소 도시 어디에나 형성된 계토라고 불릴만한 주거 지역 안에서의 생활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경향을 강화시킨다.¹⁸⁾ 이런 상황은 터키인들이 독일어를 몰라도 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일문화와 독일생활에 적응하는 데 소홀하게 했다. 후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가구 주택 안에 위층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후세인의 막내아들이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다. 터키인들은 지나치게 자기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고수하는 바람에 오히려 현지인과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영화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체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요소들이 노출되고 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터키인들은 독일 사람도 아니고 터키 사람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주 2~3세대들은 터키로 돌아간다고 해도 잘 적응해서 살지 못한다. 출신국은 터키여도 그들이 몸으로 느끼는 국가는 독일이기 때문에 고국과 이주국 사이에 커다란 갭이 존재하고 있다.¹⁹⁾ 이 영화는 1세대 이주민 후세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의 일상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준다. 독일 여자와 결혼한 막내아들은 터키 음식이 맵다고 불평한다. 이 아들은 독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터키음식보다도 독일음식이 더 입에 맞는 것이다. 이미 독일의 음식 문화가 체화돼서 미각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18) 앞의 논문, 46쪽.

19) Anna Daszkiewicz, "Jenseits von Atatürk: Das Gastarbeiterschicksal im Film, *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 *Ata Philologica*, 2014, p. 206.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체성의 문제가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영화에서 후세인은 자신들의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 모은다. 대가족이 모였을 때 후세인이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하자, 상황을 모르고 있던 부인이 미리 앞서 갑자기 독일여권을 들어 보이면서 “우리는 독일 사람이야”라고 말한다. 그때 후세인은 여권을 빼앗아 들고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먼저 앞서서 이야기한 부인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놀랄만한 사건은 “내가 터키 고향에 집을 샀다”는 것이라고 후세인은 가족들에게 갑작스런 발언을 한다. 그러자 가족들은 모두 당황한다.

독일에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모두들 왜 하필 터키에 집을 구입했느냐는 눈초리다. 결국 터키인들이 터키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후세인을 보고 있다. 큰 아들은 “우리가 그럼 돌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왜?” 라고 어이없다는 듯이 묻는다.

후세인의 아들들이 터키 국적을 가졌어도 터키는 그들에게 마음의 고향일 뿐 현실의 터전은 아니다. 그들에게 실제의 고향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독일임에 틀림이 없다. 후세인은 45년 동안이나 독일에 살았지만 터키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 결국 노년이 되자 그는 터키에 집을 산다. 이 의미는 결국 노년이 돼서는 마음의 고향인 터키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 직면한 아들들은 아무 것도 없는 가난한 터키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해 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가족끼리 혼란스런 대화가 오간다. 결국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터키에 집을 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린다.

후세인은 가족끼리 모두 터키 여행을 갈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자식들이 분명하게 동조하지 않자, “내가 처음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못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린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터키 가족일 수밖에 없어”라고 힘주어 말한다. 결국 독일 시민권을 받아도 터키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손자 첸크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독일인이야 터키인이야”하고 소리 질러 묻는다. 그러자 독일인 엄마는 독일사람, 아빠는 터키사람이라고 동시에 대답한다. 엄마가 이제는 독일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라고 설명하자 후세인은 여권은 한날 종이장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후세인은 여전히 자신이 터키사람이고 독일 여권은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독일은 언제나 외국이고 터키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은 터키에 가야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만 터키에서 보내고 청소년기를 독일에서 보낸 자식들에게는 독일이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터키라는 말만 나와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후세인의 손자 첸크는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떤 편을 들어야하느냐고 도전적인 질문을 한다. 이것은 첸크가 늘 직면하는 정체성 문제를 축구의 경우를 들어 질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터키사람이면 왜 독일에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 그러자 손녀가 첸크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독일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한다. 비단 터키사람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사람도 왔다고 이야기한다. 후세인은 손녀가 첸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흐뭇하게 보고 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손자에게 어떻게 터키에서 독일로 오게 되었는지 이주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후세인은 생각하는 듯하다.

2. 전통이라는 인습

1) 히잡

영화를 보면 후세인의 부인은 히잡을 쓰고 있는데 그의 딸들과 손녀는 히잡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주 2~3세대가 독일문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또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히잡이 여성 억압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는 히잡 착용에 대해서 코믹하게 다루고 있다. 후세인은 터키 동부의 평화로운 시골마을에서 가난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가장이었다. 처음 독일에 올 때는 초청된 노동자로 환영 받으며 왔다. 그들이 하는 일은 터키에서 하던 일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이었다. 하지만 후세인은 고향에 있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보낸다는 즐거움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휴가를 받아 자신의 고향 터키를 잠깐 방문한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서 그 소식을 엄마에게 전하기 위해 집으로 뛰어 들어간다. 후세인이 고향에 온 소식을 큰 아들이 알리자 그의 부인이 반가워서 뛰어 나온다 오랜만에 만나서 기뻐하며 서로 포옹하는 과정에서 남편 후세인이 부인의 머리를 만지자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의식하고 “내 히잡”하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간다. 무슬림 여성들은 다른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히잡을 두른다. 히잡은 꾸란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또 믿는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눈을 아래로 뜨고 숨길 곳을 지키고 노출하고 있는 외에는 내 몸에 장식해야 할 곳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얼굴의 너울을 가슴까지 내려라. 자기 남편, 아버지, 시아버지, 자기 아들, 남편의 아들, 자기 형제, 형제의 아들, 자매의 아들, 자기 집안 여자, 혹은 자기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욕망을 가지지 않는 남자의 하인, 혹은 여자의 숨길 부분에 대해 지식이 없는 유아, 이상의 사람들 외에는 내 몸의 장식해야 할 곳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발을 구르고 숨길 장식이 알려지면 안 된다.’ 믿는 자들아, 다 같이 회개하고 알라 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번영할 것이다(꾸란 24장 31절).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유발시킨다고 하여 머리를 감싸 머리카락을 숨긴다. 급진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사용하기도 한다. 꾸란은 650년경에 집필된 경전이라서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과 중동국가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꾸란에 나온 이슬람 원칙을 지키도록 강요했다. 신정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나 이라크에서는 히잡을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꾸란을 지키도록 종용했다. 이미 꾸란이 집필된 지 천삼백 년이 훨씬 더 지난 상황에서 꾸란에 나와 있는 이슬람의 규율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억지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을 억압하고 독재정치에 순응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억압수단이 되기도 했다.

오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와 딸과 신자들의 아내에게 ‘외투로 몸을 갖추어라’라고 말하라. 그것이야말로 그녀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알라께서는 잘 용서하시는 분, 자애로우신 분이시다(꾸란 33장 59절).

꾸란의 말씀을 자구 그대로 해석하면 이슬람 남성들을 모두 성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이슬람 국가 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문화가 다른 서양에서는 간간히 문화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1998년 바덴-뷔르템베르크 문화부는 공립교사 페레슈타 루딘(Fereshta Ludin)이 수업 중에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수업 중에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정교분리와 중립성 의무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루딘은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 행정법원에서 3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자 그는 이 문제를 연방헌법

재판소로 가져갔다. 2003년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주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 정부로 이관했다.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다시금 주에서 결정할 문제로 귀결되었다.

루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직자가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루딘은 교실에서 학생들만 있을 때는 히잡을 벗을 수 있지만 성인 남성이 교실에 들어올 때는 히잡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학생들에게 모든 남자는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가진 호전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히잡은 이슬람 여성의 정체성과 신앙의 증표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히잡을 하고 있는 여성은 그것이 내면화돼서 오히려 히잡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저항해 보아야 바꿀 수 없는 환경에서 여성들은 오히려 마음을 바꾸어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년간의 논란 끝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2004년에 히잡 착용금지법이 통과되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2004년 4월에 공립학교 선생이 수업시간에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가결했다. 독일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이 여당인 주의회는 “히잡이 종교와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이라며 법안을 통과시켰다.²⁰⁾ 독일에서 히잡 착용을 금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 대상이 학생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것이 프랑스와 다르다. 선생은 학교에서 정치 및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작용했다. 결국 개인의 종교적 활동은 개인에 맡겨두고 수업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편향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히잡을 쓰는 것보다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이 더 큰 문제라고 주 정부는 보고 있다.

2016년 독일의 도시 루켄발데에서 시장 엘리자베드 헤어초크-폰테어

20) “Baden-Württemberg verabschiedet Kopftuch-Verbot”, <FAZ>, 2004년 4월 1일.

하이데(Elisabeth Herzog-von der Heide)는 히잡을 착용하고 업무를 보는 48살의 팔레스타인 출신 인턴 직원을 해고했다. 시장은 이 여성이 이슬람의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시청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해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여성이 남성과 함께 일하는 곳에서는 히잡을 벗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시장은 이 여성이 일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엘리자베드 헤어초크-폰테어 하이데 시장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종교로부터 중립적이어야함을 강조했다.²¹⁾ 이와 같이 이주민에 의해서 현지인과 종교 및 문화적으로 충돌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독일정부는 1990년대 말까지 이주민의 문화에 큰 관심도 없었고 크게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잡에 대한 큰 갈등은 없었다. 하지만 이주민 정책이 달라지면서 이주민에 대한 간섭과 개입도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 영화에서 후세인 부인은 히잡을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딸이나 손녀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독일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2) 명예살인

영화에서 후세인은 가족 여행을 추진한다. 손녀 카난이 할아버지께 대학에서 시험 때문에 터키 가족 여행을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할아버지가 몹시 실망한다. 그러자 카난은 마음을 바꾸어 가족여행을 떠난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시간도 필요하다고 남자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혼자 말로 “다들 나를 미워할 거야”라고 하며 걱정한다. 결국 후세인이 카난이 임신한 것을 눈치 채고 놀라고 당황해 한다.

21) “Bürgermeisterin entlässt Praktikantin wegen Kopftuch”, <ZEIT ONLINE>, (<http://www.zeit.de/gesellschaft/zeitgeschehen/2016-08/luckenwalde-kopftuch-praktikantin-kuendung-buergermeisterin-spd>, 2016. 8. 24.).

그리고 후세인은 카난이 결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것에 대해서 몹시 걱정을 한다.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는 미혼인 여성이 이슬람 신자가 아닌 남성과 동거해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 교리에 명예살인에 관한 것이 없다. 그래도 명예살인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이유는 남성중심의 사회가 극단적인 인습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²²⁾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자의 지배권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마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여성을 보호받아야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남성의 우월성이 여성의 복종과 정절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모양처 또는 열녀 등의 이데올로기로 남성이 바라는 바에 맞게 여성을 재단해 나간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 완벽함과 정결함을 요구하는 현상은 비단 이슬람 세계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물론 서구에서도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있었지만 산업화와 근현대를 거치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면서 성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고 여성을 남성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사상도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폄박받는 현상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진행 중이고 1970년대 말 신정정치 이후에는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후퇴하였고 여성에 대해서 꾸란의 잘못된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에서 명예(namus)는 여성과 남성과의 입장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성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유지하고 결혼 후에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여성 가족 구성원의 행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들이 아내, 딸 그리고 누이를 통제하고 그와 같은 통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정당화 될 때, 남자들은 명예를 갖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²³⁾ 남성은 자기 집에 있는 여성들

22) 김중관, 「이르드(명예살인)의 사회심리적 기제에 대한 분석」,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20-2집, 2010, 39쪽.

을 통제하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여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다. 무슬림 공동체의 여러 영역에서 친척, 지인, 이웃의 평결이 큰 의미를 지닌다. 가족 명예의 본질적인 의미는 가족 구성원의 내적인 확신이나 자기정당성이 아니다. 오히려 외부 즉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지각된 현상 이미지다.²⁴⁾ 이슬람 문화에서 이와 같이 명예라는 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슬림의 입장에서 여성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폭력행위와 살인도 정당화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독일문화에 적응한 후세인은 가족 여행 중에 손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임신 때문에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는 손녀에게 “인생이 다 그런거야”라고 하며 위로 한다. 여기서 후세인은 서구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개화된 특별한 할아버지로 나온다.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용납하지 못해 명예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어느 때는 터키에서보다도 독일에 사는 터키인들이 더 보수적이고 사고가 폐쇄적인 경우가 있다. 터키를 떠나오기 전의 사고가 그대로 남아있고 더 이상 변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 터키 사람 중에는 독일로 이주할 때의 보수적인 사고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성인들의 관습에 대한 집착은 이주국가에서 남녀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후세인은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손녀를 위로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잘못된 전통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다.

23) Ingrid Pfluger-Schindbeck, “Achte die Älteren, liebe die Jüngeren”, *Sozialisation türkischer-alevitischer Kinder im Heimatland und in der Migration*, Frankfurt am Main: Athenäum 1989, p. 63.

24) 최대희, 「‘명예살인’과 독일 이주자사회에서의 가치변형」,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5호, 2015, 116쪽.

IV. 맺음말

이 영화는 피상적으로 보면 독일로 이주한 터키 가족들이 독일에 잘 적응해서 살아간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다루어야 할 독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단순히 외면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터키인과 독일인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영화 속 장면에서도 볼 수 있다. 열차 안에서 어느 터키 여인이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고 나머지 세 명의 아이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뛰어 놀고 있다. 이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노부부는 이런 상황을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작은 소리로 “저렇게 거칠게 뛰어 노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저 인간들은 피임할 줄도 모르지” 하면서 비난을 한다. 비록 짧은 장면이지만 독일인의 심정을 대변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인들은 종교와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나라 사람이 독일에 와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경계를 하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독일인과 터키인과의 불편한 관계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가능한 독일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민감한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²⁵⁾ 그 결과 분명히 독일에서 생활할 때 외국인에게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터키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히잡이라는 민감한 문제도 약간 코믹하게 다루거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면을 하는 것이 이 영화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5) Harald Mühlbayer: *Almanya - Willkommen in Deutschland*. In: Ray, Nr. 5/2011, p. 46. Alexandra Wach: *Almanya - Willkommen in Deutschland*. In: film-dienst Nr. 5/2011, p. 31.

영화에서 후세인은 노년에 터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고향에 집을 샀다. 결국 가족 구성원 중에서 독일에서 터키로 이사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세인 이외에 없다. 후세인을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터키를 그들의 보금자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독일 생활에 더 잘 적응이 되어 있다.

독일에 살면서 그들은 독일 말과 터키 말을 사용한다. 무슬림이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아이들은 성탄절 선물을 받는다. 이와 같이 이주민들은 정체성이 혼재된 삶을 살고 있다. 이주민의 유출국 문화와 이주국 문화가 뒤섞여 있는 삶이 그들 나름의 고유한 삶이 된 것이다. 또 이주민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터키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세대마다 다르고 터키에 대한 그리움도 세대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세인이 가족 여행 중에 사망한 후 가족들이 그가 살고자 했던 곳을 방문해 보니 그가 매입한 집이 결국은 벽만 남은 집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홀로 남아 있는 벽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한쪽 문화에 동화될 수 없는 외국인의 삶을 의미한다. 고향을 떠난 외국인의 삶, 모국과 외국 어디서도 안착할 수 없는 이방인의 삶이 외롭게 남겨진 벽으로 표현된 것이다.

세계 경제의 양극화와 활발한 교류로 인해 인구 이동이 빈번해 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수면 위로 가라앉아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이 후세인이 자식 세대에 부여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중관, 「이르드(명예살인)의 사회심리적 기제에 대한 분석」, 『한국이슬람 학회 논총』 제20-2집, 2010, 27~62쪽.
- 나혜심, 「터키인의 독일 이주를 통해 본 이주자의 문화적응방식, 그리고 이주의 의미」, 『독일연구』, 33, 2016, 39~77쪽.
- 박영하 외, 『유럽의 경제와 문화』, 산과글, 2016.
- 박재영, 「독일 다문화사회의 터키인 공동체」, 『다문화콘텐츠연구』 12, 2012, 7~38쪽.
- 안종철, 「탈냉전 이후 독일의 시민권제도와 이주민 정책의 변화 -국적법 과 이민법을 중심으로-」, 『사총』 90, 2017, 221~253쪽.
- 정용숙, 「1970-90년대 독일의 터키 이주민 가족 : 초국적 이주는 가족적 삶 과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인문과학』 58, 2015, 271~303쪽.
- 최대희, 「‘명예살인’과 독일 이주자사회에서의 가치변형」,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5호, 2015, 111~140쪽.
- Castles, Stephan, Hein de Haas,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5th ed.) New York and London: Guilford Press, 2014.
- Daszkiewicz, Anna, “Jenseits von Atatürk: Das Gastarbeiterschicksal im Film, *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 *Ata Philologica*, 2014, pp. 201~210.
- Keim, Inken, *Mehrsprachhige Lebenswelten. Sprechen und Schreiben der türkischstämmigen Kinder und Jugendlichen*. Tübingen: Narr Verlag, 2012.
- Keim, Inken, “Zum Zustandekommen der Studie und zur Anlage des Buches”, *Studien zur Deutschen Sprache* 58, 2012, pp. 11~20.

Pfluger-Schindbeck, Ingrid, “*Achte die Älteren, liebe die Jüngeren*”,
*Sozialisation türkischer-alevitischer Kinder im Heimatland und in der
Migration*, Frankfurt am Main: Athenäum, 1989.

Preuss, Ulrich K., “Citizenship and the German Nation”, *Citizenship Studies*
7/1, 2003, pp. 37~56.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IB/AmtUndPerson/heinz-kuehn.html>, 2017. 8.9.

<http://www.zeit.de/gesellschaft/zeitgeschehen/2016-08/luckenwalde-kopftuch-praktikantin-kuendigung-buergermeisterin-spd>, 2016. 8. 24.

Migration of the Turks to Germany and their Identity Problems

— Based on the Movie

“Almanya Welcome to Germany” —

Shin, Jong-Rak*

After World War II, Germany needed a lot more labor force in the wake of the nation's sudden economic growth. For this reason, a large number of Turkish workers were invited to Germany. The film “Almanya: Welcome to Germany (Almanya: Willkommen in Deutschland, 2011)” produced by Turkish immigrants dramatizes the question of identity for Turkish guest workers in Germany. The family dealt with in this film is a family of Turkish immigrants who assimilated themselves to German society and live a successful life. The members of the Turkish immigrants have various identities depending on the ages and they become less aware that they are Turks. On paper they have become German citizens, but the question of whether Germans actually recognize them as the German people is not dealt with in the film. But from their point of view, they have assimilated well to Germany and are no longer categorized as the Turkish people. Through this film, I examined the difficulty felt by the three generations of Turkish migrants and how the issue of migration is discussed.

The first-generation Hussein thinks that he is still a Turk, but the second-generation children are bothered to refer to such an issue and the

* Sungkyunkwan University German literature

third-generation Cenk often finds himself as a German, But in this movie, the relationship with the Germans unfortunately disappeared. Therefore, there is no direct socio-cultural conflict with the Germans, and the issue of a hijab and honor killings is slightly mentioned. Their assumption that these families have assimilated to German life is their stance, not to mentio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Germans. The problem of migration is still a matter of grave concern among the different generations of the immigrants.

Key words: Immigration, identity, Islam, Turkish workers, honor killing, hijab, multiculturalism, integration

필자 E-Mail: jongrak1327@hanmail.net

투고일: 2018년 01월 05일 / 심사완료일: 2018년 02월 09일 / 게재확정일: 2018년 02월 09일